



시코츠토우야 (支笏洞爺) 국립공원의 모습

야생동물과의 공존

야생동물의 서식지



겨울날로 털갈이한 여우

불곰은 일본최대의 육생동물

홋카이도의 불곰 분포
(2000~2002년)



출전: 환경성포유류분포조사

- 1 홋카이도 간접박이올빼미
- 2 황금새
- 3 까막딱다구리
- 4 큰부리밀화부리
- 5 붉은배지빠귀



숲에 사는 새들

자연림이 펼쳐져 있는 시코츠호 (支笏湖) 주변에는 삼림에서 서식하는 조류가 많아 신록이 선명한 초여름에는 상쾌한 새의 자자기와 숲에 울려 퍼진다. 겨울이 축독하기 때문에 홋카이도의 숲에는 여름새가 많다. 뜻새는 오색딱다구리나 까막딱다구리 등의 딱다구리류, 박새나 쇠박새 등의 박새류, 애조뇌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름새는 검은지빠귀, 붉은배지빠귀, 황금새, 휘파람새, 성촉새, 빼꾸기 등 종류가 많다.

국립공원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풍부한 삼림으로 덮인 이 공원에는 불곰을 시작으로 애조사슴 (홋카이도에서 서식하는 일본사슴의 아종), 여우, 산토끼, 애조다람쥐, 다람쥐, 애조하늘다람쥐, 여기에 박쥐나 쥐 종류 등 수많은 포유류가 서식한다. 이러한 동물 중에서도 특히 불곰과 애조사슴은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동물이다.

불곰은 일본 최대의 육생동물이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만 서식하고 있다. 예전에는 홋카이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지만, 평야부의 개발 등에 의해 서식지의 축소와 분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공원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이시카리 (石狩) 지방 서부의 불곰은 절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애조사슴은 최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림업의 피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국립공원에서도 식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홋카이도에서는 애조사슴의 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관리를 하고 있다.



북방하늘다람쥐

외래생물에 의한 영향

외래동물이나 식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된 외국산의 동물이 도망가거나 버려져 야생화된 예는 많다. 시코츠토우야 국립공원 주변에서는 미국 북서부 원산의 라쿤 (미국 너구리)이 서식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재래종의 일본가재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미국 원산의 시그널 가재는 최근 토우야호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5년에 제정된 외래생물법에 의해 이동이나 야외 방치가 금지되었다. 현재 야생화 된 개체의 포획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획된 라쿤 (미국너구리)

칼럼

토우야호 (洞爺湖) 나카지마섬 (中島)의 애조사슴



토우야호의 중앙에 있는 나카지마섬에서는 1957년에 반입된 3마리의 애조사슴이 번식하여 식害 (食害)에 의한 삼림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나카지마섬의 식생은 사슴이 먹지 않는 식물이 우점하고 있다. 사슴은 한때 300마리 가까이까지 증가하여 먹이부족에 의한 폐죽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관리를 위한 포획을 실시하여 현재는 약 150~200마리로 추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을 생각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나카지마섬은 주위 약 10km의 격리된 섬으로 애조사슴의 개체수나 식생변화 등의 파악이 쉽다. 이 점을 살려 사슴의 밀도와 식생의 변화, 그리고 사슴이 사는데 필요한 식물의 양 등, 사슴의 보호관리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